

엠든(Emden)의 종교개혁과 변혁에 관한 역사적 고찰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Reformation in Emden and its Transformation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is a historical research on how the reformation movement in Emden, Germany took place in the 16th century and transformed the whole city. At that time Emden was a shelter to the protestant refugees from Europe who were persecuted by the Catholics. Johannes a Lasco, Gellius Faber, Albert Hardenberg and Menso Alting did so many remarkable ministries in Emden. Therefore, Emden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formation cities in Europe, together with Wittenberg and Geneva and so was called the 'Geneva of the north' and nominated as the first reformation city in Europe in 2017. Through the synod in 1571, the reformed church was firmly established in Emden as well as in Europe. The population increased from 3,000 to 20,000 due to the protestant refugees so it became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Germany and the most important port of Europe. Most protestant refugees who came to Emden were high skilled workers such as textile traders, grain traders, craftsmen and skilled printing workers. They made an enormous contribution for the economic and cultural prosperity of Emden. At the same time, various ministries were done to help the poor. In this article, therefore, an investigation is made to see how this reformation happened and changed Emden.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is reformation to Korean context are drawn.

Key Words : Emden, reformation, Johannes a Lasco, Gellius Faber, Albert Hardenberg, Menso Alting, transformation

*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Handong Global University),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2017년 09월 29일 접수, 11월 03일 최종수정, 12월 11일 게재확정

1. 서론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하지만 필자는 ‘Reformation’을 ‘종교개혁’으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Reformation’은 단지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변혁(Transformation)’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예 중 하나가 독일의 엠덴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16세기 중반에 이곳에 오기 전까지 엠덴은 매우 가난하고 인구가 약 3천명인 작은 어촌이었다(Voß, 2014: 15). 하지만 이곳에 왔던 개신교 피난민들은 다수가 무역상인, 곡물업자 및 인쇄기술자 등 고급 인력들이어서 이들을 통해 엠덴은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면서 인구도 약 2만 명으로 급증하여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가 되었고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들 중 하나가 되었다.¹⁾ 또한 이곳은 비텐베르크, 제네바와 함께 종교개혁 중심지 중 하나로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 네덜란드 지역에 파송하고 재정도 지원하면서 개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여 ‘북구의 제네바’라는 별명도 얻었다. 따라서 2013년에 유럽개신교회 협의회에서는 이곳을 유럽의 ‘첫 번째 종교개혁도시(reformationsstadt)’로 지정했다²⁾(www.luther2017.de/de/neuigkeiten/emden-ist-erste-reformationsstadt-europas).

당시 엠덴이 속한 프리슬란드(Friesland) 지역은 특별히 “프리슬란트의 자유(Friesische Freiheit)”라고 불리는, 정치적으로 군주가 없이 족장(Häuptling)이 다스리는 상당히 민주적인 사회였으므로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자 특히 엠덴에 피난처를 찾아 몰려들었다(de.wikipedia.org/wiki/Friesische_Freiheit). 이 중에는 학식이 높은 엘리트들도 함께 왔는데 브레멘(Bremen)과 뤼네부르크(Lüneburg)에서 루터교 신학자들도 왔고 비텐베르크에서 안드레아스 칼슈타트(Andreas Karlstadt)도 왔으며 멜키오르 호프만(Melchior Hoffman)은 슈베비쉬 할(Schwäbisch Hall)에서 왔고 네덜란드에서도 많은 영적 지도자들 및 평신도들이 왔다.

엠덴의 개혁을 시작하던 지도자들은 이미 스위스 종교개혁자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가령 엠덴 근처 보르썸(Borssum)과 올더썸(Oldersum)에서 1531년부터 1548년까지 목회하던 헤르마누스 아퀼로몬타누스(Hermannus Aquilomontanus, 1488-1548)는 취리

1) 이런 의미에서 1561년에서 1611년까지를 엠덴의 “황금시대(Das Goldene Zeitalter)”라고 부른다.

2) 이에 관련된 동영상은 www.emden.de/kultur/reformationsstadt-europas/kurzfilm 참고.

히(Zürich)의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와 이미 서신을 교환하면서(Krömer, 2007: 31-67) 이 지역에서 성상을 제거하는 등 개혁운동을 최초로 시작하였으며(Smid, 1974: 152) 나중에 엠든으로 온 폴란드 출신의 인문주의자 요하네스 아 라스코(1499-1560)도 스위스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다. 아 라스코가 엠든으로 오면서 아퀼로몬타누스를 존경하며 ‘아버지(Vater)’로 불렀다고 한다(Krömer, 2007: 17-18). 그 후 켈리우스 파버(1490-1564), 알버트 하르텐베르그(1510-1574) 및 멘조 알팅(1541-1612) 등 개혁교회 지도자들 중 알팅은 특히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영향을 받아 칼빈주의를 엠든에 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당시 엠든에 있던 루터교 신학자들과 재세례파 등 다양한 교파 지도자들³⁾과 계속 대화하면서 일치를 추구했으며 또한 여기서 일어난 개혁을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보급시키는데 공헌하기도 했다(reformation-cities.org/cities/emden).

이처럼 엠든의 종교개혁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개혁의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작지만 함께 성장하는 것(Concordia res parvae crescunt: Durch Eintracht wachsen kleine Dinge)”이 엠든 시청의 로고이기도 한데 다양한 그룹의 시민들이 모여 살던 엠든의 역사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엠든은 인구 약 5만 명으로 오스트프리슬란트에서 제일 큰 도시이며 학문의 중심지인 동시에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Volkswagen)이 파사트(Passat) 모델을 제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항구로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크다.

이 엠든의 개혁에 대해 영어, 독일어 및 네덜란드어로 된 연구물들은 많이 있으나 한글로 된 선행연구 및 저서는 거의 없고 개혁주의학술원에서 출간한 『칼빈 시대 유럽대륙의 종교개혁가들』에서 김재윤이 “아 라스코의 삶과 신앙, 그리고 개혁교회”라는 논문을 게재한 것이 있을 뿐이다(개혁주의학술원, 2014). 하지만 유럽의 종교개혁사를 볼 때 엠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엠든의 개혁 운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으며 그것이 이 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변혁시켰는지 고찰한 후 이 운동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 교회 및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도출하겠다.

3) 이 중에는 매우 신비주의적 성향을 지닌 헨드릭 니클라스(Hendrik Niclaes)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1540년에 엠든에 와서 ‘사랑의 집(Haus der Liebe)’라는 운동을 했으나 나중에 이단으로 규정되었다(www.ostfriesischelandschaft.de/fileadmin/user_upload/BIBLIOTHEK/BLO/Niclaes.pdf).

II. 엠든의 종교개혁과 변혁

1. 역사적 배경

먼저 언급해야 할 중요한 점은 엠든의 개혁이 마틴 루터(Martin Luther)나 칼뱅에 의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다양한 준비과정을 거친 열매였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 중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디보치오 모데르나(Devotio Moderna: 근대적 경건)” 운동이다. 이 운동은 1378년 히어트 흐로터(Geert Grote)에 의해 네덜란드의 데벤터(Deventer)에서 시작되었고 14-15세기에 즈볼레(Zwolle)의 “공동생활 형제단(Broeders van het Gemene Leven)” 운동으로 확산되어 북유럽의 많은 지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Smid, 1974: 114). 이들 형제단원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복음적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신학적 사변이나 외면적 형식보다는 영적 내면성의 충실 및 수도원 개혁 그리고 믿음이 약화된 성직자들의 재교육에 힘썼다. 이 중에 위크레흐트(Utrecht)의 성 히에로니무스학교(Sint-Hiëronymusschool) 교장이 된 힌느 로드(Hinne Rode)가 있다. 나중에 그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베슬 간스포르트(Wessel Gansfort, 1419-1489)의 성만찬에 관한 개혁적인 글을 마틴 루터에게 전달하기도 했다(nl.wikipedia.org/wiki/Hinne_Rode). 이들은 또한 신약성경 헬라어와 다른 성경연구에 집중했으며 구어체로 된 성경의 보급을 힘썼고 이를 위한 인쇄 출판에도 선구자였다. “그리스도를 본받아(*De imitatione Christi*)”를 저술한 토마스 아 캠프스(Thomas à Kempis, 1380-1471)가 이 운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라스무스(Erasmus of Rotterdam)도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인문주의자로 “우신예찬(*Stultitiae Laus*)”을 출판하여 당시 교회의 부패에 대해 비판하였고 헬라어 신약성경의 본문을 편집하여 출판했다(1516년). 차후에 언급하겠지만 엠든의 개혁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종교개혁을 준비한 매우 중요한 공헌이었다.

이어 주목할 두 번째로는 네덜란드 북부 흐로닝겐(Groningen) 근처에 있던 아두아르트 수도원(Klooster van Aduard)에서 일어난 인문주의 운동이다. 이 수도원은 당시 북유럽의 기독교인문주의 교육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간스포르트, 에라스무스보다 앞선 인문주의자였던 루돌프 아그리콜라(Rudolf Agricola, 1443-1485) 및 독일에서 온 알렉산더 헤기우스(Alexander Hegius, 1439-1498) 등은 15세기에 소위 “아두아르트 씨클

(*Aduarder kring*)”을 형성하였는데 이 중에 특히 간스포르트는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을 지지하며 면죄부, 교황권 및 가톨릭의 성만찬 교리에 대해 비판하고 성경연구를 강조하여 루터 및 엠든의 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고 필립 멜랑흐톤(Philip Melanchthon)도 이를 인정하였다(nl.wikipedia.org/wiki/Abdij_van_Aduard).

엠든은 독일과 네덜란드 북부 지역 사이에 있는 돌라트(Dollard) 만의 독일 지역에 위치한 항구이지만 16세기에는 현재와 같은 국가적 구별이 없었고 언어(mittelniederdeutsche)도 같았다. 당시에 루터의 개혁사상이 퍼지면서 오스트프리스란트에도 그의 글들이 읽히게 되었는데 이는 이곳의 영주였던 에드자르드 1세(Edzard I)가 1519년에 이미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520년 엠든에서 최초로 개신교 예배를 대교회(Große Kirche)에서 인도한 게오르크 아포르타누스(Georg Aportanus: ca. 1495-1530)는 “디보치오 모데르나”의 영향을 받고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훈련받은 후 최초로 개혁주의적 성만찬을 1526년에 제정하였는데 이는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와 칼슈타트의 사상과도 연결되어 있었다(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47). 1529년에 에드자르드 1세의 아들인 엔노 2세(Enno II)가 영주가 된 후 그가 초청한 브레멘의 루터교 신학자 요한 펠트(Johann Pelt) 및 요한 티만(Johann Tiemann)이 엠든에 와서 설교하였다.⁴⁾ 재세례파들도 엠든에 많이 와 1530년에 평신도 지도자였던 호프만은 300여명에게 세례를 주며 재세례파 운동을 시작하여 엠든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유럽에서 취리히 다음으로 많았다(Voß, 2014: 15).

1568년부터 80년간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네덜란드 개신교 난민들이 박해를 피해 엠든으로 왔다. 그러면서 엠든은 “하나님의 피난처(Herberge Gottes)”라고 불렸으며 나아가 다양한 개혁가들이 사역하면서 큰 변혁을 이루게 되었다. 가령 스위스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돌아온 게하르트 톰 캄프(Gerhardt tom Camp)는 1559년에 엠든에 도서관을 설립했다.⁵⁾

당시 엠든은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변영을 구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개신교 피난민들 다수가 직조상인들, 곡물업자들 그리고 인쇄기술자들이어서 도시의

4) 하지만 엠든의 대교회에서는 1540년까지 가톨릭의 미사와 개신교회 예배가 동시에 드려졌다. (Lange van Ravensway, 2013: 670)

5) 1993년에 이 도서관은 요하네스 아 라스코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명명되었으며 지금도 종교개혁 및 근대 종교사에 관해 매우 중요한 도서들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www.jalb.de).

발전에 공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574년부터 1576년 동안 르네상스식으로 건축된 엠든 시청(Emder Rathaus)은 암스테르담(Amsterdam) 출신의 건축가 라우렌스 판 스테인빙클(Laurens van Steenwinkel)이 당시 엠든이 누리던 ‘황금시대’를 상징하는 건물로 설계하였는데 당시 안트베르펜(Antwerpen) 시청건물을 모델로 하였다(Lange van Ravenswaay, Voss & Jahn, 2014: 20). 이는 안트베르펜이 15세기 세계 무역과 부의 중심지였으나 스페인 군대에 의해 함락된 이후 그 중심이 엠든으로 옮겨졌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시청 건물 안에는 플레미시 화가였던 요하네스 페르하겐(Johannes Verhagen)이 1576년에 그린 큰 그림이 걸려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를 쳐 물을 내어 사람들이 마시는 장면이다(landesmuseum.eezeebie.com/places/details/8). 이것은 당시 네덜란드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엠든에 와서 누리던 경제적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엠든에서의 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대표적 지도자들이었던 아 라스코, 파버, 하르텐베르그 및 알팅의 사역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당시에 중요했던 사회변혁과 빈민구제사역 및 엠든 총회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요하네스 아 라스코(Johannes a Lasco, 1499–1560)

(1) 폴란드에서 엠든으로(1499–1542)

요하네스 아 라스코(폴란드식 이름은 얀 라스키: Jan Łaski)는 폴란드 귀족 출신으로 바르샤바 근처 라스크(Łask)에서 태어나 크라쿠프(Krakow)에서 자란 후 이탈리아에서 대학공부를 했다. 귀향한 후 1521년에 국왕 비서관 및 그니에즈노(Gniezno) 교구 주임 사제가 되었다. 1524년 그는 취리히에서 츠빙글리, 바젤(Basel)에서 에라스무스를 만났는데 특별히 에라스무스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아 1525년에 그의 집에서 반년 간 함께 살며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츠빙글리의 후계자인 불링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에라스무스가 나를 인도하여 신학에 몰두하게 하였고, 진정한 종교를 만나게 해주었다.” (www.luther2017.de/kr/reformation/und-ihre-menschen/johannes-a-lasco) 그 후 그는 인문주의 연구에 헌신하다 1527년 그는 친형 히에로니무스(Hieronymus)와 함께 국제 정치에 개입하여 10년간 헝가리 왕위 계승전에 관여하

면서 여러 갈등에 휩싸여 집안 재정 상태는 악화되어 결국 교회 내 모든 직을 사임하였다. 그 후 1537년에 그는 라이프치히(Leipzig)로 가서 멜랑흐톤을 만났고 네덜란드 출신의 사제이며 신학자인 알버트 하르텐베르그(Albert Hardenberg)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에서 만나 함께 루벤(Leuven)으로 가서 개신교계와 교류하였다. 1540년에 그가 폴란드 성직자로서는 처음으로 플레미쉬 여성인 바바라(Barbara)와 결혼하자 이 소식이 폴란드에 알려지면서 독신 서약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그에게 지급되던 보수가 중단되었고 그는 종교재판의 위협을 받아 엠덴으로 도피해야만 했다. 그 후 그는 다시 폴란드 교회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1542년에 안나(Anna) 백작부인이 제안한 오스트프리스란트 교구장(Superintendent)으로 엠덴에 돌아와 개혁을 시작했다.

(2) 엠덴에서의 개혁 사역(1542-1549)

그가 엠덴에 오자 많은 성도들이 그를 환영했다. 그는 당시 브레멘에서 사역하던 하르텐베르그에게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모두 친척보다 더 따뜻한 사랑으로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들의 정성과 우정 그리고 기꺼이 베푸는 모습을 나는 지나치게 칭찬할 수 없다네. 우리는 함께 조국에 도착한 기분이네.” (de.wikipedia.org/wiki/Johannes_a_Lasco) 그는 1543년부터 오스트프리스란트 지역 교회들을 정비하면서 먼저 교회공동체를 천주교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과 재세례파신도로부터 구별하였고 교회 내 제단과 성상들을 제거했다(Jürgens, 2002: 222-244). 이는 그가 루터보다 츠빙글리적인 개혁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였고 다른 교파의 그리스도인들과도 꾸준히 대화하여 가령 당시에 남아있던 프란체스코 수도사들 및 여러 재세례파 대표들도 만났다. 가령 그는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1496-1561) 및 다빗 요리스(David Joris, 1501-1556)와 토론하였는데 시몬스는 당시 평화를 추구하며 엠덴에 정착한 재세례파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당시에 공적인 교회 지도자가 박해받는 그룹의 지도자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던 일이다. 이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상호 존중하면서 각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논쟁하면서 시몬스는 이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으나 아 라스코는 더 끈질

기게 토론했는데 이는 메노의 입장에 약점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⁶⁾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이 주제에 관한 팸플릿을 출판했으며(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50) 아 라스코는 별도로 1545년에 본(Bonn)에서 ‘메노 시몬스에 대한 변호(Defensio adversus Menonem Simonis)’라는 최초의 저작도 남겼다(de.wikipedia.org/wiki/Johannes_a_Lasco).

그는 오스트프리슬란트 지역의 교회들을 새롭게 개혁하는 책임을 감당하면서 먼저 제도적 개혁으로는 지역의 “신앙고백교육”을 강화했으며 이를 위해 엠든에서 신학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 또한 당회를 재구성하여 교회행정 및 치리를 확립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Coetus”라고 하는 오스트프리슬란트 지역 목회자들의 모임을 처음으로 주선하였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그는 당시 여러 논쟁이 되는 주제들을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며⁷⁾ 나중에는 설교 후보자들에 대한 시험도 실시했다. 이 모임에 루터교회 목회자들도 함께 모여 토론을 했는데 그는 언제나 중도적 입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Jürgens, 2002: 315).⁸⁾ 즉 상호 동의한 공통적인 부분은 강조되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열어놓았다. 그 결과 양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만찬 및 요리문답을 담은 “교리집(*Moderatio doctrinae*)”을 발간하였고 엠든의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1546년에는 “엠든의 대요리문답(*Grote Emden Catechismus*)”을 출간하였다(Van der Heide, 2002: 24). 이를 통해 그는 교회적, 신학적으로 일치된 추구를 하며 화해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일치된 교리 및 교회의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다(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50-151). 그래서 그는 한때 교구장직을 내려놓기도 했으나 안나 공작부인의 만류로 다시 직분을 맡았다.

하지만 당시 엠든에는 여전히 천주교를 신봉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요한 폰 팔켄부르크(Johann von Valkenburg, 1506-72) 공이 여러 가지로 아 라스코를 공격했다. 그는 계속해서 수상한 난민들이 엠든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져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쾰른(Köln)에서의 종교개혁을 교훈으로 삼아 엠든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신앙적 청문회(Glaubens Verhöre)”를 실시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만 추방하였다. 하지만 메노나이트 교도들은 평화주의자들이르

6) 1544년 1월 아 라스코와의 대화 후 시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해 7월에 엠든을 떠나 쾰른으로 갔다(de.wikipedia.org/wiki/Menno_Simons#Anschluss_an_die_T.C3.A4uferbewegung).

7) 이를 그는 “einträchtigen Verschiedenheit(조화로운 다양성)”이라고 불렀다(Busch, 2000:143).

8) 하지만 나중에는 성만찬 교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커지면서 개혁교회 목회자들만 모이게 되었다.

로 엠든에 머물러도 좋다고 그는 보았다. 가톨릭의 반대자들은 계속 집요하게 그를 추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는 대부분의 귀족들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51).

(3) 런던에서의 개혁 사역(1549-1553)

독일의 개신교와 천주교 영주들이 싸운 슈말칼덴(Schmalkalden) 전쟁(1546-1548)에서 개신교도가 패배한 후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Augsburg)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그 협정은 개신교도에게 사제혼인과 평신도 성찬만 허용하였고 다른 개혁된 양식의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 라스코는 더 이상 엠든에 있을 수 없어 1549년 영국의 개혁자이며 캔터베리 대 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의 초청으로 런던에 갔다(Rodgers, 1995: 7). 그는 런던에서 영국 왕 에드워드 6세(Edward VI)의 임명을 받아 개신교 피난민 교회의 교구장이 되어 교회법 및 요리문답을 집필하며 영국 교회의 개혁에도 동참하였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왈룬 지역 및 프랑스에서 피난 온 개신교 난민들도 많이 있어 이들을 위해서도 엠든에서의 사역 경험을 살려 1550년에 교회법인 “*Forma ac Ratio(형식과 이론적 근거)*”라는 중요한 저작을 남겼다(Jürgens, 1999: 66-67, Springer, 2007). 동시에 이 저작은 1552년에 공동기도서, 존 낙스(John Knox)의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 1563년 독일의 팔라티나트(Palatinate) 지역 교회의 예배서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영향을 미친 피터 다테누스(Pieter Dathenus)의 예배서 및 기도서에도 영향을 주었다(en.wikipedia.org/wiki/Jan_Laski). 또한 그는 갈뱅처럼 교회공동체의 복지사업을 발전시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탁”도 설립하였다(www.luther2017.de/kr/reformation/und-ihre-menschen/johannes-a-lasco).

(4) 엠든에서의 두 번째 개혁 사역(1553-1555)

이 런던의 피난민 교회는 약 4천명이나 되었지만 5년밖에 가지 못했다. 철저한 가톨릭 신봉자였던 메리 1세가 즉위하여 영국 내 개신교도를 박해하자 아 라스코는 175명의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두 척의 덴마크 상선을 타고 코펜하겐으로 피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성만찬과 관련된 루터교 교회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이들은 다시 독일의 로스톡(Rostock), 뤼벡(Lübeck) 및 함부

르크(Hamburg)에 정착하려 했으나 계속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들은 엠든으로 방향을 돌려 1553년 다시금 환대를 받으며 정착하게 되었다.⁹⁾ 그는 그 때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지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도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53).

엠든에서 두 번째 사역을 하면서 아 라스코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한 개혁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엠든 도시 전체의 변혁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비록 그가 두 번째 머문 기간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가 떠난 이후에도 엠든은 계속해서 변혁되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겠다.

(5)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개혁 사역(1557-1560)

1555년에 그는 성만찬과 관련된 요리문답 수정작업 중 다시 논쟁에 휩싸여 엠든을 떠나야만 했다. 그 후 잠시 프랑크푸르트에서 피난민 교회 목회자로 섬기며 성만찬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루터교도들과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였다. 1548년부터 폴란드에도 개혁운동이 조금씩 일어나자 그는 조국으로 돌아와 1557년부터 폴란드교회 개혁을 위해 헌신했다. 그 결과 개신교도들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결국 왕이 가톨릭으로 남자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가 되었고 1560년에 그는 당시 개혁운동의 중심지였던 핀주프(Pinczów)에서 별세하였다(de.wikipedia.org/wiki/Johannes_a_Lasco). 그가 엠든에서 사역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남긴 유산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혁교회의 전통을 확립한 동시에 엠든에 온 개신교도들을 통해 도시 전체를 변혁시켜 나갔으며 그곳의 다양한 교회 지도자들과의 대화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화해와 일치의 추구 또한 중요한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9) 엠든으로 온 네덜란드 개신교 피난민들은 1660년, 대교회의 오른쪽입구 문 위에 자신들이 이 도시에 무사히 정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념물을 돌에 새겨 놓았는데 작은 배 한 척이 바다 위에 떠있는 모습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배(Schepken Christi)”라고 하며 그 주변에 둥글게 이런 문장을 새겨 놓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를 받아 유랑했으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위로를 주셨다(Godts Kerck vervolgt, verdreven. Heft Godt hyr Trost gegeven)”. 그리고 그 밑에는 1553년이 새겨져 있다. 이 문은 2차 대전 때의 폭격에도 파괴되지 않아 지금도 요하네스 아 라스코 도서관 건물 동쪽 문 위에 있으며 피난과 영접, 축출과 통합이라는 현재 독일 개혁교회(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의 역사적 상징이기도 하다.

3. 엠든의 변혁

아 라스코와 함께 런던에서 엠든으로 온 성도들은 대부분 네덜란드 출신의 엘리트 개신교도로 부유한 의류 및 곡물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선진적인 무역 및 금융 기법으로 엠든의 황금시대를 열었다(Hagedorn, 1910: 126). 대표적인 인물로 파울 판 빙그네(Paul van Wingene)와 그의 부인 마가레테 첼로스(Margarethe Celos)가 있는데 이들은 당시 고급 직물제조업자로 엠든에서도 직물업으로 큰 부를 쌓았다.

그 후에 수많은 네덜란드 개신교도들이 엠든으로 오게 되었고 그 중에 인쇄업자들도 많아 엠든은 인쇄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당시 네덜란드 개신교 지역에서 출판된 서적들의 약 70%가 엠든에서 출판되었다. 이들은 개혁 운동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대표적인 인쇄업자들은 스티븐 미어드만(Steven Mierdman), 장 말레(Jean Mallet), 장 가이야르드(Jean Gailliard), 니클라스 판 덴 베르그(Niclaes van den Berghe), 길리스 판 데어 에르펜(Gillis van der Erven) 등이 있다(Pettegree, 1992: 87-108).

엠든에서는 성경 번역 및 출판도 매우 활발하였는데 가이야르드는 1554년에 갈뱅의 저작들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성경을 네덜란드어로 직접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했다(Voß, 2013: 22-23). 아 라스코의 친구였던 얀 우텐호브(Jan Utenhove)는 1556년에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에서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1560년에는 갈뱅의 기독교강요를 네덜란드어로 번역, 출판하기도 하였으며 기타 요리 문답 및 시몬스의 저작들도 출판하였다(Pettegree, 1992: 87-108). 1562년에 네덜란드어로 인쇄된 “엠든 성경(Emder Bibel 또는 Deux-Aes-Bibel이라고도 함)”은 구약을 곧 프리드 판 빙엔(Godfried van Wingen)이, 신약은 요하네스 디르크니우스(Johannes Dyrkinius)가 루터 성경을 기초로 번역하였으며 1637년에 원어에서 번역한 네덜란드의 공식 성경(Statenbijbel)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읽힌 네덜란드어 성경이다.

또한 엠든의 네덜란드 개신교도들은 대교회를 ‘어머니교회(Moederkerk)’로 부르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중심지가 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www.luther2017.de/kr/reformation/und-ihre-menschen/johannes-a-lasco). 나아가 새로운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인쇄술의 발달로 더 많은 평민들이 문맹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개신교에 대한 천주교의 박해로 프랑스, 플랑드르 그리고 네덜란드 등지에서 계속 많은 개신교 난민들이 엠든으로 유입되면서 엠든의 교회와 사회가 변혁되자 1540년 이후부터 엠든은 개신교 난

민들이 가장 오고 싶은 곳이 되었다(Schmidt, 1994). 특히 네덜란드에서 온 개신교 난민들은 언어가 달라 엠든에 독자적인 교회를 세웠던 프랑수어권의 위그노들과 영국의 개신교회들과는 달리 언어가 비슷하여 기존의 개혁교회에 합류하면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교회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의 치리(Kirchzucht)”가 있었다. 덕, 질서 또는 교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회 당회에 보고되었다. 그러면 치리회는 우선 처벌보다는 회개하도록 경고하고 감독하였다. 하지만 두 번의 경고에도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출교(Kirchenbann)”를 선언하였다(Strohm, 2000: 145-171). 1554년에는 “엠든 요리문답(Emder Katechismus)”이 작성되어 19세기 후반까지 사용되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er Katechismus)으로 대체되었는데 교회의 치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에게 가서 직접 대화하라. 그가 당신의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그가 듣지 않으면 한 명이나 두 명을 더 증인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보고하라. 이런 경우 목회자와 장로들은 함께 의논한 후 교회의 허락을 받아 순종을 거부하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출교를 선포한다. 하지만 그 후 그가 회개하고 교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www.diakonie-em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

이 시기에 엠든은 급속히 발전하여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 수많은 건물들이 새롭게 건축되었는데 특히 네덜란드 양식으로 지어졌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자 도시도 북쪽으로 더 확장되었고 요새도 새롭게 건설되어 30년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결국 개신교 난민들은 엠든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었고 무역과 상업이 크게 활성화되어 영국 전체에 등록된 배들 숫자보다 엠든에 있는 배들의 숫자가 더 많았으며 1564년에는 런던에 있던 상인 모험가 회사(Company of Merchant Adventurers)가 유럽대륙 본부를 당시 세계 최대 무역중심지였던 안트베르펜에서 엠든으로 옮길 정도였다(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55).

앤드류 페테그리(Andrew Pettegree)에 의하면 엠든은 당시에 개신교 난민들의 피난처인 동시에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훈련장이었다. 이로 인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던 네덜란드 공화국은 점점 더 개신교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고 엠든은 이들로 인해 무역이 급증하고 공동체 생활 및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는 등 총체적 변혁을 경험하였으며 네덜란드 독립 운동의 지도자였던 빌름 판 오란여(Willem van Oranje) 공

의 군대에 군사 및 재정 지원을 하였으며 새로운 교회 조직에 대한 모델도 제공하였다(Pettegree, 1992).

그 외에도 엠든에는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졌으며 각자 자신들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가령 독일영토에 최초로 세워졌던 프랑크 개혁교회 이외에 영국 및 스코틀랜드 교회도 설립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양한 개신교 난민들이 왈룬, 브라만트, 보헤미아 형제단 및 팔라타인 지역에서 와서 이곳에 정착하여 팔목할 만한 족적들을 남겼다(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55-156).

4. 겔리우스 파버(Gellius Faber, ca. 1490-1564)

(1) 생애

파버는 1490년경 네덜란드 북쪽 프리슬란트의 레우바르든(Leeuwarden)에서 태어나 그 근처에 있는 엘쉴(Jelsum)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주교 사제로 일했다. 그러다가 메노 시몬스와 함께 1536년에 오스트프리슬란트에 와서 개혁교회 사역자가 되어 노르든(Norden)에서 1년간 사역한 후 1537년에 엠든에 와서 사역했다(Van der Heide, 2002: 20). 1544년에 그는 시몬스 및 아 라스코와 함께 신학 논쟁에도 참가하였으며 1564년에 소천하였다(gameo.org/index.php?title=Faber_de_Bouma,_Gellius_(d._1564)).

(2) 엠든에서의 개혁 사역(1537-1564)

아 라스코가 엠든에 오기 전부터 파버는 이곳에서 개혁주의적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였으며 아 라스코가 엠든의 교구장으로 있는 동안 그와 함께 동역했다(Van der Heide, 2002: 22-25). 그는 아 라스코를 “우리가 존경하며 학식이 매우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 동시에 형제(unse leve hoch begavede unde Godtfrüchtige Herr unde broder)”라고 불렀다(Faber, 1552: BiiiI). 아 라스코가 런던으로 떠나자 파버는 더 독립적으로 사역하였다. 하지만 가톨릭교회와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어 가령 이 신칭의 교리는 받아들였지만 예배 예식에는 가톨릭 전통이 다시 적지 않게 들어왔다(Van der Heide, 2002: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546년에 출간된 “엠든의 대요리 문답” 중 성만찬 부분을 1549년에 일부 수정하여 다시금 루터교회와의 일치를 추구했

다. 즉 성만찬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단지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다고 본 것으로 이는 칼뱅과 불링거의 입장이며 이를 “취리히 협정 (*Consensus Tigurinus of Zurich*)”라고 한다(en.wikipedia.org/wiki/Consensus_Tigurinus). 하지만 다시 엠든으로 돌아온 아 라스코는 이것이 지나치게 루터의 입장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하여 수정된 대요리문답의 출판을 중지시켰다. 그 대신 하나의 타협책으로 아 라스코는 파버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엠든의 작은 교리문답집(*Kleine Emden Catechismus*)”을 1554년에 출간하였다(Van der Heide, 2002: 27).

1552년에 파버는 재세레파가 쓴 1550년의 저작에 대한 반론으로 78쪽 분량의 책자(제목: *Eine antwert Gellij Fabri, dener des hilligen wordes binnen Emden, up einen bitterhönischen breeff der Wedderdöper*)를 출판했으나 소실되었다. 이에 대해 시몬스는 자신과 동료들이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1554년에 다시 답변(제목: *Een klare beantwoordinge over een Schrift Gellii Fabri*)을 적었는데 재세레파 사역자들, 세레, 성만찬, 징계, 교회관 및 성육신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 책은 시몬스가 출판한 가장 방대한 저서인데 여기서 그는 왜 재세레파 사역자가 되었는지 회심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파버는 아 라스코가 런던에 있는 동안 계속 교회의 일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아 라스코보다 더 루터의 입장을 수용하고 멜랑흐톤과 마틴 부쩌(Martin Bucer)의 이론도 받아들였다. 천주교 사제들과 루터교 목사들이 성만찬에 관해 충돌했을 때에도 그는 중간에서 화해를 주선했다(Van der Heide, 2002: 28).

그러자 아 라스코는 자신의 후계자로 브레멘에 있던 하르텐베르그를 데려 오려고 노력했으나 하르텐베르그가 이를 사양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크리스토프 판 올덴부르크(Christoph van Oldenburg) 공작과 엠든 시장이 멜랑흐톤에게도 접촉하였으나 그도 거부하여 아 라스코가 엠든을 떠난 1555년 이후 당분간 교구장 자리가 공백 상태로 있을 뻔하였지만 결국 파버가 이 직무를 감당하였다.

당시 당회 기록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 일치와 화합을 위해 노력했으며 교회와 정부 간에도 중재역할을 했고 엠든 교회 공동체는 대체로 그의 권위를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Van der Heide, 2002: 31-37). 기타 파버는 교회 음악에도 큰 재능이 있어 찬송가를 작사하여 ‘엠든 찬송가(*Emden gezangboek*)’ 출판에도 관여하였다(Van der Heide, 2002: 29-30). 따라서 그도 당시 엠든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 개혁자 중 한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사회 복지 및 빈민 구제사역

16세기 당시 엠든에는 지금과 같은 사회복지제도가 없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들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질병이나 노령 그리고 사망의 경우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야만 했으며 이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했다. 엠든으로 온 개신교 피난민들 중 1553년에 아 라스코와 함께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엘리트층이었으나 그 후에 온 개신교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들은 너무 가난해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가족들이 서로 도와 가능한 대로 고아들, 병자들 및 노인들을 보살피 주었고 부모가 나이 들면 자녀들이 돌봐주었다.

하지만 당시 엠든 시민들 중 이미 잘 조직된 수공업자, 선원 및 상인 길드는 이미 상조회 같은 형제단을 구성하여 서로 돌봐주었는데 가령 “카란드 형제단(Kaland-Bruderschaften)”, “성모 형제단(Unserer lieben Frauen-Bruderschaft)”, “성 안나 형제단(St. Annen-Bruderschaft)”, “성 안토니우스 형제단(St. Antonius-Bruderschaft)” 등이 있었다(Barghoorn & Wagenaar, 1997: 37). 이런 이름들은 이미 15세기부터 사용하여 천주교적 뉘앙스가 있어 초기에는 성자들을 숭상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는 빈민구제사역으로 전환되었다. 이 단체들은 우선 회원들을 서로 돌아보았고 다음에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걸하는 빈민들을 구제하였다(www.diakonie-em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 하지만 1495년부터 엠든에는 네 가지 대표적인 구제사역, 즉 클레멘트 형제단, 엠든의 곡물구제협회, 나그네 빈민을 위한 구제사역 및 엠든 시민을 위한 구제사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다.

(1) 클레멘트 형제단(Die Clementiner Bruderschaft)

먼저 클레멘트 형제단은 원래 “경건한 형제단(fromme Bruderschaft)”으로 불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 클레멘트 교황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의 복지를 돌아보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주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495년에 시작되어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선원길드(Schiffergilde)” 또는 “가난한 선원들의 동

료”라고 불리면서 선원들의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했다. 당시에 선원이 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던 동시에 고기를 많이 잡으면 수입도 많아 돈을 많이 번 회원들은 실패한 선원 가족들을 돌보았던 것이다(www.diakonie-em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

이 형제단을 기념하기 위해 엠든 시민들은 매년 1월 6일, 시청 앞에서 “성 동방박사의 날(heiligen Dreikönigstag)” 행사를 했는데 이 때 많은 성금이 모였다. 하지만 1676년에 이 제도가 폐지되고 신년 구제헌금으로 대체되었다. 모금원은 집집마다 다니며 구제를 요청했는데 이 전통은 지난 세기까지 남아 있었으며 이 단체는 지금도 있으나 더 이상 모금하지는 않고 기존 기금의 이자는 공적으로 유익한 곳에 기부하고 있다(www.diakonie-em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

(2) 엠든 시의 곡물구제협의회(Stadt Emdens Kornvorrat)

이 단체는 1557년에 세속적 기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교회도 매우 적극 참여했는데 그 목적은 곡물가 상승의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즉 곡물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안나 백작부인과 시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구매하여 보관하다가 가격이 내렸을 때 또는 춘궁기에 가난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누구든지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한 것이다. 엠든의 교회들도 이것을 매우 의미 있는 사역으로 생각하여 교회 내에서 자체 운영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20세기까지 지속되었고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 자본금으로 새로운 병원을 건축하기도 했다. 1978년에 이 단체는 해산되었고 남은 재산은 “나그네 빈민을 위한 구제사역”에 기부되었다(www.diakonie-em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

(3) 나그네 빈민을 위한 구제사역(Die Diaconie der Fremdlingen Armen)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엠든은 당시 새롭게 탄생한 개신교의 보루였으며 특히 16세기 중반에 네덜란드 개신교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지금은 당시 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들 중 부유한 계층도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었다. 그러면서 약 30년 만에 엠든의 인구가 네 배로 증가하자 기존의 교회 사역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엠든 시는 계속 유입되는 난민들

에 대해 스스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 당시 개혁교회의 입장은 열심히 일한 결과 적절한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죄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구걸은 허용되지 않았다.

1553년에 나그네 즉 외국인 빈민을 위한 구제사역의 필요성이 엠든에서 제기되었다. 안나 백작부인의 지원 하에 아 라스코가 의장이 되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 하지만 그가 1555년 엠든을 떠나자 후계자가 없었다. 그 후에 빈민 구제의 필요성이 더 커지자 1558년에 8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공식적으로 “엠든의 가난한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재단(Diaconie der aermen vremblinghen binnen Embden)”으로 출범하였다(Mülder, 1933: 7). 이 재단은 교회 지향적이었지만 동시에 교회로부터 독립된 단체였고 지금도 그렇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시청 앞 광장인 델프트(Delft)에서 모금이 허용되었다. 모금하는 남자는 소위 검은 색의 ‘스페인 망토’를 입은 채 모금통을 들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2차 세계 대전 초반까지 계속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빈민들에게는 숙소 및 빵과 같은 기본적인 식량이 지급되었다.

이를 위해 나중에는 12명의 집사들이 선출되었으며 매년 2명이 기도 후 투표로 선출되어 교체되었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 빈민들을 방문하여 필요를 채워주었고 모든 사역을 기록으로 남겼다. 일단 그들을 방문하면 다양한 자문도 해주고 감사 기도로 마쳤다. 그리고 매년 초에 전체 총회에 공적으로 결산 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서에 임직자들이 서명하였다. 그러자 도움을 받던 빈민들도 열심히 일하여 조금씩 가난에서 벗어났으며 이들이 중산층이 되면 다른 빈민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였다.

1594년에 스페인 군인들이 포위했던 호로닝엔을 포기하고 철수하자 네덜란드 난민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1609년에 스페인과 네덜란드 간에 정전조약이 체결되자 더 많은 난민들이 돌아갔다.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은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 성취되었고 그 후 이 난민들을 돕던 사역은 종결되었다.

(4) 엠든 시민을 위한 구제사역(Die Diaconie der Huus-Sittenden Armen)

1648년에 외국인 빈민을 위한 구제사역이 끝난 후 1665년에 흑사병으로 수많은 회

생자가 발생하고 30년 종교전쟁, 흉수 및 다른 이유로 엠든에 원래 살던 시민들 중 빈민이 발생하자 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사역이 교회적으로 계속되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1954년부터 이 사역은 새롭게 시작되어 이제는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지원도 제공한다. 구제위원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대교회를 1995년에 재건한 이후 지금도 대교회 당회실에서 전통에 따라 ‘스페인 망토’를 입고 모여서 회의하여 구제대상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함께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며 은밀히 집행하기 위해 모든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구호를 함께 암송한다¹⁰⁾(Barghoorn & Wagenaar, 1997: 44-47).

6. 알버트 하르덴베르그(Albert Hardenberg, 1510-1574)

(1) 학업 및 사역(1510-1567)

알버트 하르덴베르그는 네덜란드 오버아이슬(Overijssel)의 하르덴베르그(Hardenberg)에서 태어났다. 호로닝엔의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자라며 “디보치오 모테르나” 운동에 큰 영향을 받아 개인의 경건 및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헌신의 삶을 배우며 1527년에 아두아르드에 있던 성 버나드 시토 수도원(Zisterzienser klooster St. Bernhard)의 수도사가 되었다. 1530년에 루벤으로 가서 3년간 신학을 공부하다 개신교도가 되었으며 이탈리아로 가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중병에 걸려 머물던 중 아 라스코를 만나 매우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마인츠(Mainz)에서 153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Lange van Ravenswaay, Voss & Jahn, 2014: 74).

그는 1539년에 아 라스코와 함께 루벤에 가서 강연하다 개혁사상으로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풀려나 아두아르트 수도원에 숨어 도서관에서 일했다. 그 후 멜랑흐톤과 아 라스코의 조언으로 엠든에 와 있다가 다시 1543년에는 비텐베르크에 가서 멜랑흐톤을 만나 친분을 쌓으며 신학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 후에 다시 부찌의 영향을 받아 스트라스부르그와 바젤 그리고 취리히에 머물며 교회법 및 개혁신학을 배웠다.

부찌의 주선으로 그는 다시 쾰른으로 가서 당시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던 헤르만 폰 비드(Hermann von Wied) 대주교를 도와 신학자문위원으로 일했는데 1544년에 개최된 슈파이어 제국회의(Reichstag in Speyer)에 참가하여 부찌와 멜랑흐톤이 작성한

10) 이러한 모습은 www.youtube.com/watch?v=GylxwB3bjh4&feature=youtu.be에서 볼 수 있다.

개혁서 “단순한 염려(Einfältiges Bedenken)”를 변호하였고 나중에는 라틴어로 번역까지 하였다. 그 후 폰 비드 대주교는 그를 1545년에 열린 보름스 제국회의(Reichstag zu Worms)에 보냈고 이어 린쯔 암 라인(Linz am Rhein) 그리고 얼마 후에는 켐펜(Kempen)에서 목회를 하게 했는데 특별히 이곳에서는 천주교의 고해성사(Beichtpraxis)를 반대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하였다(Lange van Ravenswaay, Voss & Jahn, 2014: 77).

그 후 그는 쾰른을 떠나 아인벡(Einbeck)에서 사역하였으나 츠빙글리와 가깝다는 이유로 사직을 당하였다. 그 후 슈말칼덴 전쟁에서 야외 설교자로 사역하다가 드라켄부르그(Drakenburg)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고 이 전쟁에서 개신교 군대가 승리함으로 1547년에 브레멘 돔교회에서 최초로 개신교 설교자 및 신학 교수가 되었고 호로닝엔 출신의 게르트루이드 시싱거(Gertruid Sissinghe)와 결혼하였다.

처음에 그는 다른 사역자들과 관계가 좋았으나 성만찬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야콥 프롭스트(Jakob Probst) 및 티만과 같은 다른 루터교회 목회자들과 갈등이 생겼지만 중, 하류층의 서민들은 그의 개혁교회를 지지하였다. 이 논쟁에 멜랑흐톤이 가세하면서 하르텐베르그를 옹호하였으나 갈등은 격화되었고 1555년에 티만과의 논쟁이 심화되어 도시 전체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결국 덴마크 왕 크리스치안 3세(Christian III)의 개입으로 사태가 종결되면서 하르텐베르그는 1561년 2월 18일 브레멘을 떠나게 되었다(de.wikipedia.org/wiki/Albert_Hardenberg). 1562년에 그는 올덴부르크(Oldenburg) 근처에 있는 라스테데(Rastede) 수도원에 머물던 중 런던, 비텐베르크 그리고 마부르크 등지에서 초청이 왔으나 거절하였다. 그 후 1565년에 빌헬름스하펜(Wilhelmshafen) 근처 쟁바르든(Sengwarden)의 설교자가 되었다. 그 후 1567년부터 엠든의 설교자가 되어 1574년 이곳에서 페스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섬겼다.

(2) 엠든에서의 개혁 사역(1567-1574)

아 라스코가 1555년에 엠든을 떠난 후 겔리우스 파버가 1564년까지 사역했고 3년 후 하르텐베르그는 엠든에서 설교자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1540년에 아 라스코와 함께 엠든을 방문하여 설교한 적이 있기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Janse, 1994: 102). 그의 주 사역은 대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었지만 당회도 인도하였는데 그 분야는 국가, 정치, 사회, 사회복지 및 보건, 결혼 및 가정, 칼빈주의 교회 및 교회 협의회 그리고 치리

였다. 이 중에서도 그는 특히 세 번째 사역, 즉, 교회 행정, 신학적 및 교회법적 주제들에 대한 해설 및 조치, 자매 교회들에 대한 설교자 지원, 개혁교회들 간의 국내외적인 협력 등에 집중했다(Janse, 1994: 104).

나아가 엠든 지역 목회자들의 모임인 ‘Coetus’ 의장으로 섬기면서 목회자들에 대한 영적인 감독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설교자 선발과 임명 및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사역도 했다(Janse, 1994: 106-107). 이와 동시에 그는 16세기 당시 북부 독일지역에서 가장 많은 도서들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 도서들은 지금까지도 엠든에 있는 요하네스 아 라스코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¹¹⁾

또한 하르텐베르그는 세속 정치 영역에 대한 교회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그 한 가지 예로 엠든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추방하자는 청원이 당회에 접수되었을 때 그는 이를 거부하면서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Janse, 1994: 109). 그는 1574년 5월 18일에 소천하여 대교회에 묻혀있으며 그의 사역은 칼빈주의 사역자 멘조 알딩이 이어 받았다. 결국 그는 아 라스코 및 파버의 개혁 사역을 계승하여 개혁 교회 및 신학을 견고히 하며 엠든 지역에서의 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7. 엠든 총회(Synode von Emden, 1571)

하르텐베르그가 사역하는 기간 중 1571년 10월 4일에 최초로 엠든 총회가 개최되었다. 1559년에 프랑수어권 교회들은 이미 총회를 통해 교회의 조직을 갖추었으나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은 80년간 독립전쟁을 하면서 엠든뿐만 아니라 노이스(Neuss), 베젤(Wesel), 엠머리히(Emmerich), 고흐(Goch), 레이스(Rees), 아헨(Aachen), 쾰른,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그 및 프랑켄탈(Frankenthal) 등 여러 지역들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들을 통합하는 총회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1568년 10월에 베젤에서 36명의 네덜란드 난민들이 모인 개혁교회 목사 및 장로들이 모여 총회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총회 시기는 1571년 10월 1일로 잡고 처음에는 장소를 프랑크푸르트로 정했다가 다시 쾰른으로 변경되었고 나중에 엠든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엠든에서도 하르텐베르그가 시무하던 대교회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 스파이의 참여 등 여러

11) 이 도서들은 독일 정부의 후원으로 1998년에 전부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다.

부담이 있어 프랑스어권 교회에서 조용히 개최되었다(Lange van Ravenswaay, Voss & Jahn, 2014: 57-58).

10일간 계속된 총회에 29개 교회 대표가 참석하였고 의장은 가스파르드 판 데어 헤이든(Gaspard van der Heyden)이 맡았으며 엠든을 대표해서 프랑스어권 교회 목사인 요하네스 폴리안더 아 게르코호븐(Johannes Polyander a Kerckhoven)이 서기로 섬겼다. 이 총회를 통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규정 및 교리를 확립하고 장로교 정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벨직 신학교백과 네덜란드어권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프랑스어권 교회들은 제네바 요리문답을 채택하였다(de.wikipedia.org/wiki/Synode_von_Emden).

나아가 보충성(Subsidiarität) 원칙을 천명하면서 위계서열적인 교회구조를 배격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개별 교회도 참여(Partizipation)할 수 있는 참여의 원칙도 강조하면서 제 1조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어떤 공동체도 다른 공동체들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어떤 목회자도 다른 목회자들보다 위에 있지 않고, 어떤 장로도 다른 장로들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어떤 집사도 다른 집사보다 위에 있거나 우선순위에 있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¹²⁾(Perlich, 1973: 49).

총회 조직은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는 갈뱅이 1559년에 제네바에서 실행한 “교회법(Ordonnances ecclesiastiques)”을 따른 것이다. 여기서 각 지역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 장로 및 집사들이 모인 회의¹³⁾가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린다(제 6조). 그러나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들에 관해서는 지역 노회에서 결정하며 노회는 각 당회에서 2명(목사와 장로)의 총대를 파송하여 구성한다(제 7조). 지역 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제 8, 9조).

이러한 엠든 총회의 결정은 1578년 네덜란드의 도드레흐트(Dordrecht) 총회에서 재확인되었으며 전 세계 개혁 및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신교회 헌법 및 조직의 모델이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정치 모델은 전 세계 민주국가들의 헌법에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Keine Gemeinde soll über andere Gemeinden, kein Pastor über andere Pastoren, kein Ältester über andere Älteste, kein Diakon über andere Diakone den Vorrang oder die Herrschaft beanspruchen, sondern sie sollen lieber dem geringsten Verdacht und jeder Gelegenheit aus dem Wege gehen.”

13) Presbyterium, Kirchenrat, Kirchenvorstand 또는 Konsistorium이라고도 한다.

8. 멘조 알팅(Menso Alting, 1541-1612)

(1) 학업 및 하이델베르크 사역(1541-1575)

멘조 알팅은 네덜란드 출신의 개혁주의 설교자요 종교 개혁자였다. 그는 호로닝엔 근처인 엘드(Eelde)에서 태어났다. 호로닝엔의 성 마틴학교(Sint Maartenschool)에서 공부하면서 스승인 레그네루스 프라이디니우스(Regnerus Praedinius)에게서 개혁인문주의(Reformhumanismus)를 배웠다. 당시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하르텐베르그와 간스포르트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훈련받았다. 하지만 알팅은 이곳에서의 학업을 잠시 중단한 후 나중에 독일의 여러 곳에서 공부했다(Voß, & Jahn, 2012: 13-14).

그 후 알팅은 독일의 쾰른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564년에 그는 네덜란드 북부 하른(Haren)에서 부교역자로 일하다 몇 개월 후 그 근처 슬렌(Sleen)의 목회자가 되었다. 1565년에 그는 성경, 특히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다 개혁에 가담하여 하이델베르크에서 학업을 마친 후 헬펜(Helpen)으로 돌아와 있다가 슬렌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Voss & Jahn, 2012: 15).

1566년 네덜란드의 가톨릭 성당에 있던 성상들을 파괴한 사건(Beeldenstorm) 이후 네덜란드에서 스페인의 알바 공에 의해 개신교도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자 알팅은 1567년 7월 독일로 피난 와서 하이델베르크 등 여러 곳을 전전하던 중 1574년에는 테오도르 베자(Theodor de Beza)를 알게 되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집필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및 카스파 올레비안(Caspar Olevain)과도 오랫동안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하이델베르크에서 설교자로 사역하다가 1575년에 엠든교회의 청빙을 받자 처음에는 몇 번 거절했으나 마침내 수락하여 엠든에서 담임 사역자로 일하게 되었다.

(2) 엠든에서의 개혁 사역(1575-1612)

하르텐베르그를 계승하여 1575년 10월 그는 엠든의 대교회에서 담임 설교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정치 지도자가 되어 엠든에서 칼빈주의의 부흥을 일으켰다. 이전의 교회 지도자들과는 달리 알팅은 루터교회와의 타협보다는 보다 더 개혁주의적으로 교회적,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알팅은 1578년 엠든에서 종교대화(Emder Religionsgespräches)을 열어 당시 그곳에 있던 재세례파 지도자들과 대화했다(Lange van Ravenswaay, Voss & Jahn, 2014: 17). 이를 통해 그들 간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Voss & Jahn, 2012: 17).

당시 프리슬란트의 영주인 빌립 로드베이II(Willem Lodewijk)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알팅을 1594년에 호로닝엔과 드렌테로 초청하여 설교하게 했는데 그 해 7월 17일 호로닝엔의 마르티니교회(Martinikerk)에서 최초로 개혁주의 예배를 인도했으며 그 후 드렌테에 가서 설교했다. 이때부터 그는 “드렌테의 개혁자(de kerkhervormer van Drenthe)”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다. 그 때 그는 그곳에 있던 고인돌을 설교단으로 사용했다고 한다(nl.wikipedia.org/wiki/Menso_Alting).

1595년 3월 18일, 그는 오스트프리슬란트의 루터란 영주인 에드자르트 2세에 대항하여 엠든에서 칼빈주의 주민들의 반란을 주도하였다. 이를 “엠든의 혁명(Emder Revolution)”이라고 부른다(Lange van Ravenswaay, Voss & Jahn, 2014: 16). 그 결과 1595년 7월 5일에 맺어진 “델프자일 협약(Vertrag von Delfzijl)”에 의해 그 때부터 1744년까지 엠든은 반독립적 지위를 누리는 칼빈주의적 도시공화국이 되었다. 그 후 1612년 알팅은 70세에 소천하였다. 그는 앞선 개혁자들이 이룬 사역을 더욱 견고히 하여 엠든에서의 교회개혁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독립성을 확립하는 데 공헌했다고 말할 수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엠든에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는지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먼저 도출하고 싶은 첫 번째 결론은 종교개혁이 중세와의 극단적인 단절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속적인 개혁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루터를 보면 천주교와 대립한 모습들이 더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유럽 북서부 프리슬란트 지역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은 우선 호로닝엔 근처 아두아르트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이 종교개혁의 길을 열어주는 빗장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파버, 하르덴베르그 그리고 알팅 모두가 이러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엠든의 개혁은 단지 교회와 신학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개혁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개혁자들은 당시의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갔다는 것이다. 가령 개신교 난민들이 몰릴 듯 유입될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였고 그 중에 가난한 난민들이 많아지자 다양한 구제사역을 하였다. 이런 점은 제네바에서 개혁을 주도한 깔뱅과 이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¹⁴⁾가 신학자와 목회자로 네덜란드의 세속화된 국가교회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기독교 대학인 자유대학교를 세워 수많은 인재들을 키웠고 나중에는 기독교당을 창당하여 수상까지 지내면서 교육 및 사회개혁을 추구하여 신칼빈주의를 낳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교회는 아직도 성속을 구별하는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주일 중심의 신앙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사회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자살률, 저출산 및 고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및 불공정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한국 교회는 더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 해결을 위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엠든의 개혁자들이 천주교와의 차이점은 강조하면서도 개신교 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화해와 일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신앙 고백 속에서도 화합을 추구하기 위해 협의체(Coetus)를 만들고 대화 모임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근대교회사를 보아도 선교사들 및 교회 지도자들이 교단 간 서로 협력하였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분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교회들이 특히 이 점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최용준, 2006).

네 번째로 엠든의 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체는 개신교 난민들이었다는 점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수많은 개신교 난민들을 낳았고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전 세계로 흩어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 난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회에 통합한 도시들은 얼마 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황금시대를 누렸다는 사실이다. 16세기 스위스의 제네바, 독일의 엠든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역사가 이

14) 카이퍼의 박사 학위 논문이 칼빈과 아 라스코의 교회관을 비교한 것이었고 이후 그는 직접 아 라스코전집을 출판한 것을 보면 그가 아 라스코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를 분명히 증명한다.¹⁵⁾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도 북한에서 오는 새터민들 이외에는 타국의 난민들에 대해 그리 개방적이지 못하며 지역 교회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한국으로 오는 여러 종류의 난민들과 다문화가정을 복음으로 지혜롭게 섬길 때 한국 사회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장 깔뱅과 요하네스 아 라스코의 공통점이기도 한 데 이들의 신학 사상이외에도 한번 떠났던 곳에 다시 가서 개혁의 꽃을 피웠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혁에 한번 실패하였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모든 개혁에는 수구세력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진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엠든의 개혁자들과 성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개혁에도 헌신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신앙의 거장들이었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곤 했다. 그렇게 헌신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일군이였다. 따라서 한국 교회 및 기독교인들은 이 엠든의 개혁 역사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본받아 이 시대에 한국사회에 새롭게 적용함으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15) 이런 의미에서 엠든의 요하네스 아 라스코 도서관과 오스트프리슬란트 박물관은 공동으로 2017년 5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종교개혁과 피난 - 16세기의 엠든과 신앙난민들(Reformation und Flucht - Emden und die Glaubensflüchtlinge im 16. Jahrhundert)”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다. www.jalb.de/17380-0-309-42.html 참고.

참고문헌

- 개혁주의학술원 (2014). **칼빈 시대 유럽대륙의 종교개혁가들**.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014). *Reformers in the European Continent at the time of J. Calvin*. Busan: Kosin University Press.]
- 최용준 (2006). **하나됨의 비전**. 서울: IVP.
- [Choi, Y. J. (2006). *Vision for Unity*. Seoul: IVP.]
- Barghoorn, J. & Wagenaar, A. (1997). “500 Jahre Emders Armenversorgung”
Züchner, C. (Hrsg.) *Über Zeiten und Räume*. Gerhard Verlag Emden. 37-48.
- Busch, E. (2000). “Die Ekklesiologie bei a Lasco und Calvin”, Strohm, C. (Hrsg.)
Johannes a Lasco (1499-1560): Polnischer Baron, Humanist und europäischer Reformator. Tübingen: Mohr Siebeck.
- Faber, G. (1552). *Eine Antwort Gellij Fabri, dener des hilligen wordes binnen Emden up einen bitter-Hönischen breeff der Wedderdöper*. Madgenburg.
- Hagedorn, B. (1910). *Ostfrieslands Handel und Schiffahrt im 16. Jahrhundert*. III. Berlin: Curtius.
- Janse, W. (1994). *Albert Hardenberg als Theologe*. E.J. Brill.
- Jürgens, H. P. (2002). *Johannes a Lasco in Ostfriesland: Der Werdegang eines europäischen Reformators*. Mohr Siebeck.
- Jürgens, H. P. (1999). *Johannes a Lasco - Ein Leben in Büchern und Briefen. Eine Ausstellung der Johannes a Lasco Bibliothek*. Foedus.
- Krömer, E. (2007). “Der Briefwechsel des Hermannus Aquilomontanus mit Heinrich Bullinger”, *Emder Jahrbuch für historisch Landeskunde Ostfrieslands*. Bd. 87. Risius. 31-67.
- _____. (2007). “Hermannus Aquilomontanus”, in Martin Tielke (Hrsg.)
Biographisches Lexikon für Ostfriesland, 4 Bde. Aurich 1993-2007, Bd. 4, 16-18.
- Lange van Ravenswaay, J.M.J. (2013). “The importance of the John a Lasco library Emden/Germany for the history and theology of the Reformed churches”
International Congress of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es. Seoul.
- Lange van Ravenswaay, J.M.J., Voss, K.D., Jahn, W. (2014). *Emden: Orte der Reformatio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 Mülder, J. (1933). *Die Diakonie der Fremdlingen-Armen im Emden: 1558-1933*.

- Wenzel.
- Perlich, D. (1973). *Die Akten der Synode der niederländischen Gemeinden, die unter dem Kreuz sind und in Deutschland und Ostfriesland verstreut sind, gehalten in Emden, den 4. Oktober 1571*. In: Evangelisch-Reformierte Kirche in Nordwestdeutschland (Hrsg.): *1571 Emden Synode 1971. Beiträge zur Geschichte und zum 400jährigen Jubiläum* Lomborg, E. (1973). bearb. und red. Neukirchener Verlag.
- Pettegree, A. (1992). *Emden and the Dutch Revolt: Exile and the Development of Reformed Protestantism*. Clarendon Press; 1 edition.
- Rodgers, D. W. (1995). *John à Lasco in England* (American University Studies) Peter Lang Inc.,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 Smid, M. (1974). *Ostfriesische Kirchengeschichte*. Pewsum.
- Springer, M. S. (2007). *Restoring Christ's Church: John a Lasco and the Forma ac ratio* (St Andrews Studies in Reformation History) Routledge; 1 edition.
- Strohm, C. (2000). "Kirchenzucht und Ethik bei a Lasco", Strohm, C. (hrsg.) *Johannes a Lasco (1499-1560): Polnischer Baron, Humanist und europäischer Reformator*. Tübingen: Mohr Siebeck.
- Van der Heide, J. W. (2002). *Gellius Faber: pastoor in Friesland, predikant in Oost-Friesland*.
- Voß, K. D. & Jahn, W. (Hrsg. 2012). *Menso Alting und seine Zeit. Glaubensstreit - Freiheit - Bürgerstolz* Oldenburg, Isensee Verlag.
- Voß, K. D. (Hg.) (2013). "Wie eine Lilie unter Dornen.."–theologische, historische und genealogische Aspekte von Wanderbewegungen flandrischer Buchdruckerfamilien im 16. Jahrhundert" in ... *doch die Welt nicht Heimat mir?: Beiträge zu sechs Jahrhunderten Migrationsgeschichte in Ostfriesland und den benachbarten Niederlanden*. Ostfriesland Verlag. 9-50.
- Welker, M., Beintker, M. & de Lange, A. (2016). *Europa reformata: European Reformation Cities and their Reformer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Schmidt, H. (1994) *Geschichte der Stadt Emden von 1500 bis 1575*. Pewsum
- de.wikipedia.org/wiki/Albert_Hardenberg (2017.09.01.)
- de.wikipedia.org/wiki/Friesische_Freiheit (2017.09.01.)
- de.wikipedia.org/wiki/Johannes_a_Lasco (2017.09.01.)
- de.wikipedia.org/wiki/Menno_Simons#Anschluss_an_die_T.C3.A4uferbewegung

(2017.09.01.)

de.wikipedia.org/wiki/Menso_Alting (2017.09.01.)

en.wikipedia.org/wiki/Consensus_Tigurinus (2017.09.01.)

en.wikipedia.org/wiki/Jan_Łaski (2017.09.01.)

landesmuseum.eezeebie.com/places/details/8 (2017.09.01.)

nl.wikipedia.org/wiki/Abdij_van_Aduard (2017.09.01.)

nl.wikipedia.org/wiki/Hinne_Rode (2017.09.01.)

nl.wikipedia.org/wiki/Menso_Alting (2017.09.01.)

[gameo.org/index.php?title=Faber_de_Bouma,_Gellius_\(d._1564\)](https://gameo.org/index.php?title=Faber_de_Bouma,_Gellius_(d._1564)) (2017.09.01.)

reformation-cities.org/cities/emden (2017.09.01.)

www.jalb.de (2017.09.01.)

www.jalb.de/17380-0-309-42.html (2017.09.01.)

www.luther2017.de/kr/reformation/und-ihre-menschen/johannes-a-lasco
(2017.09.01.)

논문초록

엠든(Emden)의 종교개혁과 변혁에 관한 역사적 고찰

최용준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본 논문은 16세기에 독일 오스트프리스란트(Ostfriesland) 지역의 엠든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그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변혁되었는가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다. 당시 유럽에서 개신교도들이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엠든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다. 그리고 요하네스 아 라스코(Johannes a Lasco), 겔리우스 파버(Gellius Faber), 알버트 하르덴베르그(Albert Hardenberg) 및 멘조 알팅(Menso Alting) 등은 이곳에서 개혁의 지도자들로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리하여 당시 엠든은 비텐베르크(Wittenberg) 및 제네바(Geneva)와 함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 도시 중 하나가 되어 ‘북구의 제네바’라는 별명을 얻었고 2017년에 유럽에서 최초로 종교개혁도시(Reformationsstadt)로 지정될 정도였다. 나아가 1571년에 개최된 엠든 총회(Synode von Emden)를 통해 개혁교회(Reformierte Kirche)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인구도 3천 명에서 개신교 난민들의 유입되어 2만 명으로 급증하여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가 되었고 독일에서도 가장 큰 도시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곳에 왔던 개신교 피난민들은 다수가 무역업자, 곡물상인, 수공업자 및 인쇄기술자들과 같은 전문 직업인들이어서 이들을 통해 엠든은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린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구제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 엠든을 변혁시켰는지 살펴본 후 이것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며 한국 교회 및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도출하겠다.

주제어 : 엠든, 종교개혁, 요하네스 아 라스코, 겔리우스 파버, 알버트 하르덴베르그, 멘조 알팅, 변혁

